

“끊임없이 나를 새로 그려요”

산문박의 禪

원로화가 한봉덕 옹

“그림은 소리없는 찬가입니다. 그림을 볼때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유형 무형으로 달려오고 달려가는 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번뇌덩어린 현실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 처리해야 할까. 이것이 늘 내에게는 그림그리는 화두였습니다.”

50여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라면 스케치는 물론 색에 있어서도 달인의 경지일 텐데 한봉덕화백(73)은 요즘도 그림 한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백장의 스케치를 한다. 1만여장이라는 스케치그림을 모아 지난 86년에 <한봉덕 소묘집>을 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부드러운 모필로 유화를 그린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마치 사찰이나 고구려 벽화에서와 같은 유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강렬하고도 화려한 색깔과 날카로운 선묘, 부드러운 질감이 시공을 초월해 언제나 독특

한 질경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외경은 내내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특히 때를 지어 나르는 군학(群鶴)의 모습은 그림의 주소재. 그의 그림에 즐겨 나오는 학, 즉 새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방향각각을 상징한 현대인에게 주는 메타포이다. 활짝 날고 싶은 욕구, 갈등과 고뇌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잠재된 욕구를 잘 암시해 주는 상징이다. 청소년시절부터 밴 중앙사상, 특히 불교사상은 일생 그가 표현하는 그림의 메시지며 누구나 그의 그림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경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자 '봉'은 원래 '새 봉(鳳)'이었는데 '발봉(奉)'으로 바뀐 것도 스님과 관련이 있다. 2살때 영변 천주사의 스님이 이름을 고쳐야 장수를 한다는 것과 그가 50세전에 큰 불사를 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 70년부터 72년에 걸쳐 서울



50년 그림 수행... 수백장 스케치 통해 한장 완성 학을 주소재 삼아 갈등·고뇌 탈출 대자유인 추구

하고 신선한 감각을 준다.

“내에게는 캔버스가 하나의 도량입니다. 하얀 캔버스앞에 앉아 있을 때는 커다란 법당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럴때면 법당에서처럼 잡념이 사라지고 그리다는 일념만이 남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번뇌는 끊이지 않고... 그리고 보면 그림 그릴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비구상을 주로 하는 그의 작품에서 일필휘지로 그려진 산은 있는듯 하면서 없고 없는듯 하면서도 뚜렷이 있다. 산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그의 은마음이 붓끝에서처럼 잡념이 사라지고 순수 추상형태와 색채만 뚜렷하게 생동한다. 메시지로 남는 것은 동양의 자연사상, 인간의 자연으로의 원초적인 귀소본능이다.

한봉덕화백은 광복 영변에서 태어나 4살때부터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다. 사서삼경과 육조당경 등 고전을 즐겨 읽었다. 10대 시절 낙담으로 외삼촌이 주지로 있던 금강산 표훈사에 가 요양을 했던 기억이 늘 새롭다. 이때 금강산의 빼어

난 절경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외경은 내내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특히 때를 지어 나르는 군학(群鶴)의 모습은 그림의 주소재. 그의 그림에 즐겨 나오는 학, 즉 새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방향각각을 상징한 현대인에게 주는 메타포이다. 활짝 날고 싶은 욕구, 갈등과 고뇌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잠재된 욕구를 잘 암시해 주는 상징이다. 청소년시절부터 밴 중앙사상, 특히 불교사상은 일생 그가 표현하는 그림의 메시지며 누구나 그의 그림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경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자 '봉'은 원래 '새 봉(鳳)'이었는데 '발봉(奉)'으로 바뀐 것도 스님과 관련이 있다. 2살때 영변 천주사의 스님이 이름을 고쳐야 장수를 한다는 것과 그가 50세전에 큰 불사를 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 70년부터 72년에 걸쳐 서울

고국에 정착하며 하루 열몇시간씩 교박 매달려 완성한 것이 대작 '한라산'. 2천여 점 화폭에 한라산의 4계를 반구상 형식으로 담았다.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다보니 더욱 동양의 정신이 큰 산처럼 뚜렷이 다가옵니다. 나이들수록 산 그 자체에 매료되고 신비와 자애, 부처님풍采도 같은 감하는 초대전을 성황리에 가졌다. 그리는 이유도 그것이지요.”

한봉덕화백은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화려50여년을 초강하는 초대전을 성황리에 가졌다. 초대전을 준비하던 그는 지난 3월 위암 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했지만 그럭도 않고 병고를 이겨내 오�히려 창작의 열정을 더욱 지펴가고 있다.

“모든 형상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자유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그림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제행무상의 진리를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그림을 통해 매번 새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경숙 기자

불법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문 예를중에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경 난조우'란 말이 나옵니다. 불법은 그만큼 만나기 어렵고 이해하기에도 힘든 법이라는 뜻같은데요. 저쪽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류원영·부산 사상구 김점동)

답 훌륭한 가르침은 대가가 다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설하신 것이어서 사람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요.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에도 정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도 진리를 알려줌으로 진리에는 학문과 달리 고하가 있지 않습니다. 세간의 가르침에는 어려운 것 쉬운 것이 있지만 불법은 어렵고 높직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바르고 현실적이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열려있는 사실에서 귀한 것입니다.

또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가 백천만경에도 어렵다는 것은 희귀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

심히 실천하면 누구라도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기고 또 반겨야 합니다. 불자라면 이 점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경전에 여성평화 내용이 있는데...

문 지금의 불교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원으로 이어오다가 나중에 엮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된 생각이오나 그래서 그런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남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 어떤 분들은 경전 구절을 근거로 여성을 심히 편하하는데 아무래도 잘못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장지영·미 LA에서)

답 부처님법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과거에 살던 것을 짚어낸 채 오늘에 살고 있듯이 부처님법을 삼천년 전의 법만은 아닙니다. 삼천년 전이 라하더라도 바로 지금이지요.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란 따로 없고 바로 지금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오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에 오늘의 법이고 석가모

지 상 상 담

길 잃은 나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법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회 대행스님께 물 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8

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 다.

가뭇 말하지만 세상에는 하도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출생지, 신분, 학력, 성격, 환경 등 천차만별이지요. 세간의 가르침도 노력과 공의 샘플공부에서 과학자들의 고등수 학에 이르기까지 수준차이가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공기는 차 별이 없듯이 불법도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학문이 높은 사람만을 위해 법을 설하시지도 않았고 부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 마치 햇빛이 차별을 두지 않듯이, 공기가 무차별 적이듯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을 알리게 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황희심을 갖고 가르침을 맞 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아예 어렵 다고 지레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질문한 것 처럼 복이나 빌고말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 다.

언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법은 어려우 니 잘 모르겠거든 열심히 빌기라도 하라'고 하셨던가요. 평생동안 그런 말씀하신 일 없 고 오히려 이 법은 현실의 법이요 누구나 와 서보라고 할 법이다라고 하셨습니. 질문하 신 처사님은 어찌시렵니까?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복 이라도 비시겠습니까? 그중 어느 쪽을 택하 든 불자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왜냐? 세존 계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요.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열

니 세존께서도 삼천년 전에만 오신게 아니라 오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이 어느 때에 편집이 되었건 간에 그 나름대로 정성을 다 기울여 진리를 담은 것이니 무어라 탓할 수는 없지요.

물론 아무리 완벽하게 편집이 되었다 할지 라도 불법은 현실의 법이니 시대가 변천하는 데 따라서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 지요.

그러나 경전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만 고쳐도 고칠 수 있을 겁니 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글씨를 쓰려면 종이와 먹이 있어야 하듯이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백지를 모르고는 글 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부터 알아라, 그래야 진리도 알고 작용도 아나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어디가 잘못되었으니 내 가 고쳐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서 백제 를 모른다면 울바로 고치지도 못하겠지만 부 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할 수도 없지요.

고한다 안 고한다를 떠나 불이오면 저로 씩이 터서 꽃이 필니다.

여성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색신으로는 남녀 의 구별이 있지만 마음에 무슨 성별이 있었 습니까?

부처님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 밝히 는 일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 별을 들은 것, 그런 분별이 계시다면 세간계 이거나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밝아 있습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래기간 병을 앓고자 병방법을 다쳐도 치유 되지 않아 오래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인계십 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써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으로 완전히되었고, 현대의학도 포 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 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개양, 위암, 대장암,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 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 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강화, 알레르기성비염,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 가지 도구세트화(강화약속 약 2개원분 포함)
2) 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핸드셋으로 전가족이 사용
4) 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쑥뜸기 사용법

1) 쑥뜸기 사용법 설명서 1부
2) 쑥뜸기 사용법 설명서 2부
3) 쑥뜸기 사용법 설명서 3부
4) 쑥뜸기 사용법 설명서 4부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 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한양 광장 소년)
● 부산 불교 비리법 집행 연구회
● 전화: (051)88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농촌리 30-1 (농원빌딩3층) 성지문화회
● 전화: (033)334-9490, 39-1906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여정정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8-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시지회: (055)73-0939
경남통영지회: (0552)23-9016
경남통영지회: (0552)24-7536
창원지회: (0551)62-0076
세천당지회: (0443)46-3023
의정부지회: (031)873-0532
경주지회: (0561)772-3255
경주시: (053)745-211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
용
해
보
세
요
!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윌(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 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 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 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이상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